

孟郊 시가에 나타난 자연묘사 양상

배 다니엘*

<目 次>

1. 서론
2. 孟郊 시가에 나타난 자연묘사 특징
 - 1) 차갑고도 처연한 경지 표현
 - 2) 奇險하고 苦澁한 이미지의 형상화
 - 3) 현실의 불만과 고독감의 자연묘사 속 이입
3. 결론

1. 서론

大歷, 貞元시기의 문단을 대표했던 시인으로 '元白'과 '韓孟시파'를 들 수 있다. 두 시파의 창작경향은 흔히 '社會를 향한 의식의 서사'와 '藝術을 위한 인고의 노력'으로 구별되는데 그들의 시 중 자연을 묘사한 시가의 창작경향 역시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었다. 元白시파가 비교적 담백한 필체를 구사하며 정태적인 산수나 자연물의 관조를 통한 자연정경을 주로 묘사했다면 韓愈, 孟郊, 賈島, 姚合, 盧仝, 李賀 등이 활약한 韓孟시파¹⁾는 험준한 산세나 사계절의 변화, 세밀하고 축

* 남서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1) 韓孟시파는 貞元7년(791) 長安에서 韓愈가 孟郊와 교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元和 2년(807) 가을에 韓愈가 國子博士로 洛陽으로 가게 되고 孟郊 역시 洛陽에서 水陸運從事로 있으면서 다시 洛陽을 중심으로 화합하게 된다. 韓孟시파는 貞元(785-804)에 형성되고 元和(806-820)에 대성했으며 長慶에 쇠미하게 되었으므로 활동기간은 약 30년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으로는 韓愈(768-824)와 孟郊를 중심으로 재능이 있으면서도 새로운 시가 창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결합된 張籍(765-830), 盧仝(?-835), 賈島(793-865), 馬異(799전후), 劉叉(813전후), 李翱(?-844), 皇甫湜(813전후), 張徹(?), 崔立之(?), 侯喜(?)

소된 자연 등을 옹호하면서도 奇特한 필치로 그려낸 점이 비교된다. 中唐시단에서 만연했던 모방의 풍조를 일신하고 시가발전의 새로운 기법을 창출하고자 노력한 韓愈시파는 자연시의 창작에 있어서도 신기한 표현과 포진의 수법, 시가의 산문화, 세미한 자연의 주목, 정련되고 공교한 묘사 등을 통해 자연시의 새로운 예술 풍격을 창출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韓愈시파의 구성원들은 韓愈의 후진양성 의지에 의해 모인 문인들이기는 하나 대부분 관로가 순탄하지 못했던 문인들이었기에 세상에 비분과 소외의식을 갖고 있으면서 서로 간에 동병상련의 심정을 갖고 교류에 임하였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평온하지 않아 소리는 났던(不平則鳴)”²⁾ 개인적 배경 속에서 시가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자 하는 미감추구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자연을 묘사한 시에 있어서도 奇險하고도 幽深한 풍격의 시가를 창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흔히 ‘韓孟’, ‘孟賈’, ‘賈姚’ 등으로 병칭되며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이들의 작품들은 中唐 자연시에 있어 매우 이채롭고도 중요한 현상을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그 중 孟郊(751-814)는 평생을 곤궁하게 지내면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울분과 원망이 내면에 가득 찼기에 사회나 현실에 대한 폭로와 비판의식이 유난히 강했던 인물이었다.³⁾ 貞元 8년 長安에서의 과거응시를 기점으로 하여

- 등이 있다. (고팔미, 〈韓愈시파의 창작론과 심미성향〉, 중국학연구 제26집, 2003. 12. 참조)
- 2) 韓愈가 〈送孟東野序〉에서 “무릇 만물이 평정을 얻지 못하면 소리를 내게 된다. (大凡物不得其平則鳴)”라고 한 ‘소리’는 “하늘이 그 소리에 화답하는 기쁨의 소리”와 “몸이 굶주리고 마음이 근심에 젖어 스스로 자신의 불행을 노래하는 슬픔의 소리”가 모두 섞인 소리를 의미하나 韓愈시파의 ‘不平則鳴’은 울분이나 원망 쪽에 더 편중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고팔미, 전제 논문 참조)
- 3) 孟郊(751-814)의 字는 東野이고 湖州 武康人이다. 젊어서 嵩山에 은거했다가 46세가 되어야 進士에 급제하여 貞元 17년(801)에야 溧陽縣尉가 되어 〈游子吟〉을 썼다. 시 짓는 것을 즐겨서 ‘詩囚’라는 칭호를 들었으나 賈島가 〈哭孟郊〉, 〈吊孟協律〉에서 그를 애도하며 “일찍이 부인이 죽고 자식도 없어져, 집안은 파하여 숲과 시내를 집 삼았네. (寡妻無子息, 破宅帶林泉.)”라고 했듯이 부인의 이른 죽음과 아들 셋의 요절, 仕途의 험난함과 빈한한 가세 등이 그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고 평생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다가 元和 9년(814)에 졸했다. 辛文房의 《唐才子傳》에는 “孟郊는 삶에 있어서는 즐박했으나 가난하면서도 골기가 있었고, 갈옷을 지어 입으면서도 일찍이 미간을 찌그러 가련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의를 숭상하는 사람일수록 그를 더욱 그리워한다. (郊拙于生事, 一貧徹骨, 裘褐懸結, 未嘗俯眉爲可憐之色. 然好義者更遺之.)”라고 평한 바 있다. 賈島와 함께 古拙하면서도 淸高한 시를 지어 唐代 張爲가 그의 시를 일러 “淸奇하고 僻된 고뇌를 주로 한다. (淸奇僻苦主)”라고 평했고 宋代

그의 시가사상을 전후기로 살펴보면 은거에서 출사를 원했던 전기에는 시가의 내용 역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후기로 가면서 '言志'에서 '주관적抒情'을 중시하는 쪽으로 선회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⁴⁾ 일생동안 불행, 고통, 고독, 가난 등의 단어가 어울리는 처량한 생활을 했던 탓에 그의 작품은 '不平則鳴'의 평어에 부합한 작품이 여타 韓孟시파 시인들보다 많으며 그로 인해 창작된 자연시⁵⁾의 내면 역시 韓孟시파 작품 중에서도 세미한 차이점과 특성을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孟郊가 묘사한 자연산수의 모습은 어두운 사회현실과 개인의 불우함이 초래한 비판정신과 반항의식을 표출하기 위한 대상과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을 노래하면서도 백성의 고통과 사회의 부조리를 주목하였고 그 속에서 개성적인 산수자연시를 많이 남기고자 했던 그의 노력이 느껴지는 부분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韓孟시파의 중요 문인인 孟郊의 자연시에 담긴 내용과 서술적 특색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孟郊가 바라보고 그려낸 자연산수의 모습은 韓孟시파의 창작의식이 어떻게 자연시에 반영되었는가, 盛唐 자연시 창작의 맥을 이으면서 시풍의 변환을 도모했던 中唐 劉長卿, 韋應物, 柳宗元 등 여타 자연시인들과는 어떻게 비교되는가하는 측면에서도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향후 中唐代에 들어와 다양하게 발전해나간 자연시의 예술적인 풍모를 세부적으로 살피는 시도를 계속 가할

蘇軾은 〈祭柳子玉文〉에서 “元稹은 가볍고 白居易는 속되며, 孟郊의 시는 차갑고 賈島의 시는 말랐다(元輕白俗, 郊寒島瘦)”라고 평을 가하였다. 시문집으로 《孟東野集》 10권, 500여 수의 시가를 남겼다.

- 4) 肖占鵬은 《韓孟詩派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9. 6. 제97쪽)에서 “前期由隱而仕, 人生態度是積極的, 詩歌思想也要求有爲而作, ‘補風教’, ‘證興亡’, 創作實踐上步武盛唐, 詩歌基調是積極明快的. 後期仕途蹉跎, 詩歌思想由前期的重言志轉向重主觀抒情, 追求奇險怪異之美, 創作上形成怪奇詩風.”이라 하여 前後기에 따른 孟郊 시가사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 5) 孟郊를 들어 ‘王孟韋柳’처럼 전문적으로 자연을 묘사한 자연시 작가로 볼 수는 없지만 자연묘사를 통해 자신의 창작의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한 역할을 했던 시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자연시 중에서 비교적 유명한 작품으로는 〈汝州南潭陪陸中丞公宴〉, 〈與王二十一員外涯游枋口柳溪〉, 〈石淙〉, 〈寒溪〉, 〈送超上人歸天台〉, 〈峽哀〉, 〈游終南山〉 등의 시가를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孟郊의 작품들을 통해 中唐 자연시 흐름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고 본다.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해 보는 것이다.

2. 孟郊 시가에 나타난 자연묘사의 특징

孟郊의 자연시는 陶淵明이나 謝靈運 등 전대 문인들이 산수 속에서의 한담한 서정을 노래했던 것과는 달리 ‘처연하고 차가운 경지(淒寒)’와 ‘기이하고 험한 경지(奇險)’ 그리고 ‘괴롭고도 뚝은 경지(苦澁)’를 추구한 것이 비교된다. 孟郊 스스로 “밤에 배우면 새벽까지 쉬지 않으며, 苦吟하기에 귀신도 근심한다.”⁶⁾라고 한 것도 이러한 의식을 밝힌 것이다. 韓愈가 孟郊의 시에 대해 “공령하고 생경한 시어가 횡행하며, 평온한 주제는 힘써 배척할 정도로 고집스러웠다.”라고 평하거나 “동야는 세속을 놀라게 하고, 하늘 꽃의 기이한 향기를 토해낸다.”라고 평한 것⁷⁾ 등은 모두 孟郊 시가가 “괴로운 생각과 심원한 경지(苦思深遠)”를 담고 있는 특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孟郊 시가에서 자연을 묘사한 부분을 보면 상당 부분 ‘처연하고 차가운 경지(淒寒)’와 ‘기이하고 험괴한(奇險)’한 경지를 지향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쓰고 뚝은 맛(苦澁)’을 지니고 있는 그의 시가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孟郊 자연시가 보여주는 ‘차갑고(寒)’ ‘그윽한(幽)’ 경계는 이전의 中唐 자연시가 보여준 淸冷한 느낌을 더욱 초월하는 경지에 있고 그의 시에 나타난 奇險한 풍경묘사는 孟郊의 자연시를 다른 시인의 작품과 구별되게 할 정도로 중요한 특징이 된다. 이른바 ‘郊寒島瘦’로 대표되는 孟郊의 창작성향과 함께 개성적인 면모를 지닌 孟郊 자연시를 특성을 “차갑고도 처연한 경지”, “奇險하고 苦澁한 이미지”, “현실의 불만과 고독감 표출 양상”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차갑고도 처연한 경지의 표현

가세가 빈한한데다 여러 차례 과거에서 낙방하였고 長安에서 羈旅의 생활을 경

6) 孟郊, 〈夜感自遣〉: “夜學曉未休, 苦吟鬼神愁.”

7) 韓愈, 〈荐士〉: “橫空盤硬語, 妥帖力排羣.”, 〈醉贈張秘書〉: “東野動驚俗, 天葩吐奇芬.”

협한 孟郊의 생애는 실로 기아와 추위를 절감하는 삶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孟郊의 시가 중에는 현실의 곤궁함을 반영한 차가운 형상의 자연물이 매우 자주 등장한다. 孟郊는 시가창작을 함에 있어 냉정한 심정을 갖고 주변의 여러 소재와 제재를 취사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자연물을 바라보고 묘사한 작품에는 괴이한 소리를 내는 맹수나 怪鳥, 寒風, 氷水, 雪, 얼음 덩어리, 烏鴉 등 차갑고 냉랭한 意象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의상은 자신의 寒冷한 심리상태를 반영한 것이며 독자로 하여금 음산하면서도 공포스러운 감각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차갑고도 처연한 의경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본 절에서는 孟郊 시의 중요한 특성으로 거론할 수 있는 寒冷하면서도 淒然한 면모를 나타낸 시구들을 예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洛陽의 다리에서 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을 묘사한 다음 시가를 보면 차갑고 적막한 의경을 창출하기 위한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같은 환경이라면 일반적으로 노을의 아름다움이나 정경의 서정을 그리는 여타 시인의 작품과 대비되는 면모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洛橋晚望〉 (낙교에서 저녁에 바라보며)

天津橋下冰初結	천진교 밑에 얼음이 처음 맺히고
洛陽陌上人行絕	낙양 길거리에 행인들도 끊어졌다
榆柳蕭疏樓閣閑	느릅나무와 버드나무 성글어지고 누각 한가한데
月明直見嵩山雪	달이 밝아 송산의 눈이 바로 보이누나

시 전반에 걸쳐 얼음과 눈이 주는 차가운 기운이 흐르고 있다. 흥청대던 낙양 다리에 행인도 끊어졌고 나뭇잎도 듽성듬성 성글게 남은 상황을 ‘絶’, ‘蕭疏’ 등의 형용사로 묘사하여 고적한 의경을 배가시켰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淸冷한 느낌을 받게 되며 말구에서 ‘달이 밝다(月明)’고 한 표현조차 송산의 눈과 연결되어 차갑게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간결한 표현을 지향하면서 타인의 시가와 구별되는 孟郊 특유의 寒冷한 서정을 추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⁸⁾

8) 清 潘德輿, 《養一齋詩話》, 권9: “予論唐詩, 小與人異, 東野〈洛橋晚望〉云: ‘天津橋下冰初結, 洛陽陌上人行絕. 榆柳蕭疏樓閣閑, 月明直見嵩山雪.’ 筆力高簡至此, 同時除退之之奧, 子厚之淡.

孟郊가 洛陽에서 있던 시절에 쓴 다음 시⁹⁾에서도 자신만이 느끼는 차갑고 소산한 비애를 질게 투영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秋懷〉其二 (추회) 제2수

秋月顏色冰 가을 달빛 얼굴에 차갑게 비치고
 老客志氣單 늙은 객이 된 나의 패기는 다하였네
 冷露滴夢破 찬 이슬방울이 떨어지며 꿈을 깨우고
 峭風梳骨寒 매서운 바람 뺏속을 빗질하듯 붙어댄다
 席上印病文 침상에는 병의 그림자만 아로 새겨져 있고
 腸中轉愁盤 가슴속엔 근심이 쟁반 위에 구르듯
 疑懷無所憑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 의지할 곳 없는데
 虛聽多無端 까닭 없이 헛된 소리만이 들려오네
 梧桐枯嶢嶢 오동나무는 다 말라서 바스락 소리를 내는데
 聲響如哀彈 그 소리는 마치 애끓는 거문고 가락과 같구나

병든 몸이 되어 근심에 쌓여있는 시인에게 가을밤의 차가운 기분이 엄습한다. 고독한 심신의 상태를 “달빛이 얼음 같다”, “찬 이슬방울이 떨어지며 꿈을 깨운다”, “매서운 바람 뺏속을 빗질 한다”, “병의 그림자만 아로 새겨져 있다”, “근심이 쟁반 위를 구른다” 등의 기괴하면서도 과장된 표현을 활용해 묘사하였다. 특히 ‘冰’, ‘單’, ‘冷’, ‘寒’ 자 등의 시어는 직접적으로 寒冷한 감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말연에서 ‘자신의 재능(梧桐)’이 다함을 표현한 ‘枯’자¹⁰⁾ 역시 메마른 느낌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글자가 된다. 울분과 회한을 자연 속에 투영하는 것은 시인들의 공통된 작위이지만 이 시에 나타난 寒冷한 표현들은 더욱 더 얼음같이 차가운 슬픔의 형상을 하고 극도의 공허함과 적막함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배고픈 까마귀들의 모습과 봉황새와의 비교를 도모한 다음 작품에도 냉랭한 기

文昌之雅，可與匹者誰乎？而人獲以退之傾倒不置爲疑。” 참조.

9) 喻朝剛, 《全唐詩廣選新注集評》,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제6권, 제44쪽): “詩狀住洛陽在河南尹幕中充當下屬僚吏時貧病交加的苦況.” 참조.

10) 이 시에서처럼 孟郊는 여러 편의 시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종종 거문고의 재료인 ‘梧桐’을 통해 비유하고 있다. 이 시의 경우 말연의 “梧桐枯嶢嶢” 구절에서는 ‘梧桐’을 들어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였고 ‘嶢嶢’으로 그 재능의 비범함을 표현하였으나 이와 함께 ‘枯’를 활용함으로써 결국 그 재능이 쇠미한 상태에 있음을 비유하고 있다.

운을 가득 담은 자연물들이 등장한다.

〈饑雪吟〉(눈 속에서 배고파 울다)
 饑鳥夜相啄 굶주린 까마귀 밤이면 서로 쪼아대고
 瘡聲互悲鳴 서로 간에 상처 입은 소리 슬피 들려오네
 冰腸一直刀 얼음처럼 차가운 뱃속은 한 줄기 칼 같고
 天殺無曲情 하늘은 이유 없이 간절한 정까지 없애 버리네
 大雪壓梧桐 큰 눈이 오동나무를 누르고 있고
 折柴墮崢嶸 높은 곳에서는 가지가 꺾여 떨어지네
 安知鸞鳳巢 봉황새가 깃드는 둥지엔
 不與梟鳶傾 올빼미와 솔개는 함께 하지 못함 어찌 알겠는가
 下有幸災兒 아래로는 재앙에서 구해진 아이 있고
 拾遺多新爭 남겨진 이들 다시금 다툰다
 但求彼失所 그저 상대방이 잘못된 것만 구하고
 但誇此經營 단지 이쪽의 경영함만 자랑하고자 한다
 君子亦拾遺 군자는 또한 무엇인가를 남기고자 하나
 拾遺非拾名 남기는 것은 이름만이 아닐지라
 將補鸞鳳巢 난새와 봉황새 둥지를 지키고자 하면
 免與梟鳶並 올빼미와 솔개와는 함께 하지 못하리
 因爲饑雪吟 눈 속에서 굶주리면서 읊조리는 것은
 至曉竟不平 새벽이 와도 평온함을 얻지 못함 때문이라

새들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득의하지 못하는 상황과 이에 따른 처연함 심정을 그린 작품인데 “차가운 눈 속에서 배고픈 괴조가 울어대는(饑雪吟)” 상황을 詩題와 배경으로 채택한 것에서 부터 소슬한 느낌을 얻게 된다. 굶주린 까마귀가 밤이면 서로 쪼아대고 그 상처로 인해 울어대듯 시인은 괴로운 마음에 차가운 울음을 삼키고 있다. 그러한 자신에게 다시 ‘冰腸’, ‘大雪’ 등의 차가운 환경이 엄습한다. 이 시에서도 ‘큰 눈이 그 오동나무를 누르고 있음’과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가지가 꺾여 떨어진다’는 표현을 통해 ‘梧桐’, ‘崢嶸’으로 대변되는 자신의 재능과 한계를 적절히 비유한 것이 눈에 들어온다. ‘幸災兒’, ‘拾遺’ 등의 표현, ‘饑鳥’의 비천함과 ‘鸞鳳’의 숭고함 등을 통한 寓意도 독특하지만¹¹⁾ 등장하는 자연물들은 전체적

11) 喻朝剛, 《全唐詩廣選新注集評》,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94. 제6권, 제41쪽): “通過‘幸災

으로 차갑고 서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는 시인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투영체가 된다 하겠다.

다음 시 역시 차가운 자연과 차가운 심정을 함께 표현하고 있어 孟郊 시의 寒冷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苦寒吟〉(고한음)

天寒色青蒼 하늘빛은 푸르고 창창한데
北風叫枯桑 북풍은 마른 뽕나무에 울부짖네
厚冰無裂文 두꺼운 얼음에는 갈라진 줄 하나 없고
短日有冷光 짧은 태양에는 차가운 빛만 도사리네
敲石不得火 부싯돌을 두드려도 불이 붙지 않고
壯陰正奪陽 차가운 그늘이 태양빛을 가리고 있네
苦調竟何言 이 고통스러운 어조로 결국 무엇을 말하려는가
凍吟成此章 얼은 심신으로 이 문장을 작성하여 읊조리나니

각 구절마다 하늘, 바람, 얼음, 태양 등의 자연물을 등장시켰는데 이 자연물의 형상은 ‘寒’, ‘北’, ‘冰’, ‘冷’, ‘陰’ 등 모두 차가운 이미지를 발하고 있다. 차가운 배경 못지않게 묘사된 자연물 역시 극도의 차가운 형상을 보여준다. “파란 하늘에 淸冷하게 도사린 차가운 기운”, “마른 뽕나무”, “갈라진 곳 없는 단단한 얼음”, “차가운 빛”, “붙붙지 않는 부싯돌”, “얼은 심신으로 읊조림” 등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이 완벽하게 차가운 경지에서 냉랭한 의경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¹²⁾ 시인의 마음이 철저히 메마르고 차가운 경지에 있음을 시사하는 작품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孟郊는 山水와 자연을 묘사함에 있어 한랭하고 건조한 의상을 선호하였다. 예거한 시 이외에도 “저문 하늘에 차가운 바람 붙어 슬픔이 흘날리고, 까마귀는 나무를 돌며 우는데 샘물 소리도 목이 메었네.(暮天寒風悲屑屑, 啼鳥繞樹泉水噎.)”(《往河陽宿峽陵寄李待御》), “계곡에서 늙은이 통곡하매 심히 차가워, 눈물이 방울져 흘러내리네.(溪老哭甚寒, 涕泗水珊珊)”(《寒溪九首》其八), “차가운 강에 물결도 얼어, 천리까지도 평탄한 얼음이 없네.(寒江波浪凍, 千

兒, 與‘君子’, ‘拾遺’的比較, 表達了崇鸞鳳卑臯鶯之情, 內中有寓意.” 참조.

12) 이 시에 대해 宋 國材, 《孟東野詩集》卷一: “吟苦寒遂覺寒甚.” 평어를 참조할 수 있다.

里無平冰)”(《寒江吟》) 등 매우 많은 구절에서 차가운 자연물이나 차가운 심경을 추출하여 노래하고 있다.¹³⁾ ‘凄寒’, ‘清冷’, ‘寒冷’, ‘苦寒’ 등의 풍격을 띤 孟郊의 시 구절은 차갑게 식어버린 시인의 처연한 내면이 자연을 대함에 있어서도 음산하고 전율에 찬 배경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파악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또한 그가 은거하기 위해 별장으로 돌아가는 豆盧策을 송별하면서 “얼음과 눈 같은 한 편의 문장으로, 속세를 피하고 늘 스스로 가다듬기를.(一卷冰雪文, 避俗常自携.)”(《送豆盧策歸別墅》)이라고 당부한 것은 세속에 대해 냉철함을 견지하고자 했던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蘇軾이 지적한 “郊寒島瘦”의 ‘寒’은 詩歌의 風格인 동시에 생활의 고난과 마음고생의 결과로 생겨난 차가운 경지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2) 奇險하고 苦澁한 이미지의 형상화

기험한 시풍을 지향했던 孟郊의 詩 作品은 전반적으로 ‘窮僻’한 현실 속에서 ‘苦吟’의 과정을 통해 창작되었다.¹⁴⁾ 孟郊가 애호했던 자연의 모습은 일상적인 자연의 형상을 뒤뜰린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한랭한 시각을 투영하여 묘사되기도 하였고 이채로운 산하의 모습이나 전설 중의 奇特한 정경 등이 적절히 이입된 신묘한 이미지로 재탄생되기도 하였다. 평범한 자연물이 아닌 이채로운 느낌이나 공포심을 배가시키는 자연물의 형상화를 위해 각종 수법을 발휘한 흔적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 역시 독자로 하여금 여타 시인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낯설게 하기’, ‘괴벽한 의상의 재현’ 등의 독특한 느낌을 얻게 한다. 본절에서는 孟郊가 지향했던 괴벽하고 기험한 자연의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孟郊가 인식하고 표현하고자 했던 자연의 형상은 어떠했는지 구명해보기로 한다.

孟郊가 終南山을 찾아 노니는 興취를 그린 다음 作品 〈游終南山〉을 보면 이미

13)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全唐詩》 卷372에서 卷381에 실린 孟郊의 시가 약 500수 중 차가운 의상을 제공하는 단어인 ‘寒’이 60회, ‘冷’이 13회, ‘冰’이 35회, ‘凍’이 19회씩 각각 등장하고 있다. 孟郊가 지향한 시적 이미지가 다분히 차갑고 소슬한 경향을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 宋 魏泰, 《臨漢隱居詩話》: “孟郊詩寒澁窮僻, 琢削不假, 眞苦吟而成, 觀其句法, 格力可見矣.”

지를 奇險하고 苦澁한 표현을 통해 그리고자 했던 면모가 나타난다. 또 한편으로 는 험난한 여정을 겪은 후의 평화로운 마음도 노래하고 있어 '奇險'과 '平穩'을 두루 추구했던 孟郊 시가의 독특한 정신과 기술수법도 발견할 수 있다.

〈游終南山〉(종남산에서 노닐며)

南山塞天地 종남산은 하늘과 땅의 경계가 되어
日月石上生 해와 달도 바위 위에서 생겨난다
高峰夜留景 고봉은 밤에도 경치 또렷하고
深谷晝未明 깊은 계곡은 낮에도 어두컴컴하다
山中人自正 산 중에 있는 사람 절로 반듯해져
路險心亦平 길은 험해도 마음은 평화롭다
長風驅松柏 큰 바람 송백에 몰아치고
聲拂萬壑清 그 소리 온 계곡에 맑게 퍼진다
卽此悔讀書 이 모습 보고 글 읽은 것 후회하노라
朝朝近浮名 매일 매일 공명을 추구했다니

終南山的 큰 규모에 착안하여 첫 연에서 終南山을 '하늘과 땅의 경계(塞天地)'라고 표현한 것과 해와 달도 '바위 위에서 생겨난다(石上生)'라고 표현한 것 등은 매우 생경하고 이채로운 묘사를 가한 예에 해당된다.¹⁵⁾ 크고 깊은 終南山的 봉우리가 밤에도 또렷한 자태를 보이고 깊은 계곡은 낮에도 어둡다는 반어법적인 표현 역시 奇險하고 독특한 인상을 제공한다. 종남산의 자태를 실제로 체험한 작자는 이 속에서 심리적 위안과 깨달음을 얻는다. 제3구의 '산 속(山中)'은 치우치지 않은 '중용(中)'을 연상시키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어느덧 '스스로 공정(自正)'해지고 평온한 심리적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산이 크므로 바람도 강렬하나 시인의 마음은 다시금 송백처럼 의연하게 '맑은(淸)' 자태를 유지한다. 중국에는 자신이 글을 읽은 것은 그저 흥진 중의 헛된 명성을 추구해서였음을 깨달았으나 이는 이전 구절에서 활용한 '險', '驅' 자처럼 많은 험난함을 경험한 후에 얻어진 깨달음이다. 생경한 시어와 기험한 언어를 활용하여¹⁶⁾ 終南山的 고봉과 골짜기의 바

15) 수언 '南山' 두 구에 대해서는 高棅, 《唐詩品彙》卷二十에 실려있는 宋 劉辰翁의 "未知其下云何, 卽此其出, 有不容至.", "驚異" 등의 평어를 참조할 수 있다.

16) 淸 唐汝詢《唐詩選脈會通評林》卷20: "奇話橫出, 結有玄想.", 淸 沈德潛《唐詩別裁集》卷4:

람을 표현하면서 이 속에 있는 마음은 공정하고 평온한 것이며 이 험한 정경과 떨어져 있는 세속의 마음이 오히려 험난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라는 비유를 행간에서 펼치고 있다.¹⁷⁾ 이전의 시인들이 終南山을 묘사할 때 평온한 정경의 묘사에 치중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다소 이채로운 묘사가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겠다.¹⁸⁾

河陽으로 가는 도중에 산에서 묵으면서 친구에게 부친 다음 작품에서도 괴이하고 기벽한 풍격을 추구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往河陽宿峽陵寄李侍御〉 (하양으로 가는 길에 산골짜기에 묵으면서 이 시어에게)

暮天寒風悲屑屑	저문 하늘에 차가운 바람 불어 슬픔이 훑날리고
啼鳥繞樹泉水噎	까마귀는 나무를 돌며 우는데 샘물 소리도 목 매었네
行路解鞍投古陵	길 가다 옛 무덤가에서 말안장 푸니
蒼蒼隔山見微月	건너편 산 또렷한데 그 위에 뜬 달 희미하다
鴉鳴犬吠霜烟昏	올빼미와 개 짖는 소리 어두운 서리와 운무 속에 들리고
開囊拂巾對盤飧	벗짐 풀고 수건 털고 앉아 간단히 요기하네
人生窮達感知己	인생이 곤궁하게 되어야 비로소 지기를 깨닫는 것
明日投君申片言	내일은 그대에게 한 마디 소식 보내야지

수연의 차가운 바람과 까마귀 울음, 희미한 샘물 소리 등은 시가 전체로 하여금 황량하고 처량한 이미지를 갖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저물녘 머무는 곳은 뜻밖에도 옛 무덤가인데 이로 인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까지 느끼게 된다. 이어진 희

“盤空出險語.” 평어 참조.

17) 말연에서 “即此悔讀書”라 한 것은 《南史》에 실린 沈攸之의 “일찍이 궁달함에 운명이 있음을 알았다라면, 한스럽게 십년 동안 글 읽지 말 것을.(早知窮達有命, 恨不十年讀書.)”이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18) 이전에도 終南山을 노래한 작품들은 많았으나 그 중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은 王維의 작품 일 것이다. 일례로 王洪은 《唐詩精華分卷》, (北京: 朝華出版社, 1992. 6. 제717쪽)에서 宋國材, 《孟東野詩集》明凌夢初刻本: “寫得自別與摩詰, 各有各至.”의 평어를 참조하여 “孟郊詩亦寫山之高大, 却重在突出其峻峭, 加之奇峭的聯想, 令人實睹其胸臆間塊磊, 此正與摩詰流連風景之韻致迥異其趣.”라고 하면서 王維의 시와 비교되는 孟郊 시에 대한 의견을 펴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하게 뜬 달, 운무 속에서 들려오는 울빼미 소리와 개 짖는 소리 등의 표현 역시 독자로 하여금 음산한 기분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이러한 소재활용과 표현들을 통해 맹교가 청아한 자연보다는 청냉하고 괴이한 이미지를 지닌 자연을 더욱 인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겠다.

貞元 9년에 京山으로 가며 지은 다음 작품에서도 시 전체에 怪異하면서도 苦澁한 느낌이 흐르고 있음이 발견된다.

〈京山行〉(경산으로 가며)

衆虺聚病馬 등에 떼가 병든 말에 몰려들어 빠는데
流血不得行 피 흘러도 떠나가려 하지 않는다
後路起夜色 뒷길에는 어둠이 내리고
前山聞虎聲 앞산에는 호랑이 소리 들리누나
此時游子心 이 때 떠도는 아들 된 이의 마음은
百尺風中旌 바람 속에 서있는 백 척 깃발이라

병든 말에 몰려들어 피를 빠는 등에 떼와 피 흘리는 말의 모습, 어디선가 들려오는 호랑이 울음 등은 괴이한 느낌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 중에 어둠이 깔리고 있어 스산하고 공포스러운 배경은 그 효과를 더하고 있다. 이전의 자연시나 여타 자연시인이 추구했던 산수에 정을 담거나 강호에서 한적하게 嘯傲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가파른 긴장감과 枯槁한 감정만이 남아있음을 살필 수 있다. 전체 시가를 읊시 형식의 여덟 구가 아닌 여섯 구로 표현함으로써 무언가 안정되지 못한 느낌을 얻게 한 것과 떠도는 신세 된 이의 불안한 심리를 바람 속에 힘겹게 서 있는 깃발에 비유한 것도 역시 이채로운 느낌을 얻게 하는 수사기교라 하겠다.

孟郊가 자연을 奇特한 모습으로 형상화한 〈巫山曲〉은 전설과 고사를 활용하여 절경을 묘사하는 독특한 수법을 보여준 작품의 예가 된다.

〈巫山曲〉

巴江上峽重復重 파강 상류 협곡은 계곡이 겹치고 겹쳐
陽臺碧峯十二峰 巫山の 남쪽 열 두 봉우리 푸르고도 가파르다

荊王獵時逢暮雨 옛날 형왕은 사냥할 때 저녁 비를 만나
 夜臥高丘夢神女 밤에 高丘에 누워 꿈속에서 무산 신녀와 만났더랬지
 輕紅流烟濕艷姿 가벼운 강 흐름은 연기로 아름답게 젖어 있고
 行雲飛去明星稀 떠도는 구름은 흘러가다 밝은 별빛에 희미해지네
 目極魂斷望不見 눈길이 다 가는 곳에 혼은 끊어져 보아도 보이지 않고
 猿啼三聲淚滴衣 원숭이 울음소리 세 번 들리니 눈물만 옷 위에 떨어지네

이 시는 樂府 鼓吹曲辭에 나오는 〈巫山高〉의 내용을 참고하여 여행 중에 느끼는 다양한 감흥을 換韻의 수법을 활용하여¹⁹⁾ 표현한 시이다.²⁰⁾ 수구에서 ‘첩첩 겹쳐있다(重復重)’라고 한 것은 유명한 巫山 十二峰의 실경을 묘사한 것이 되는데 ‘碧峯’ 두 글자를 통해 기벽하고 아득한 모습을 개괄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어 神女峰의 매력을 설명하였는데 이 때 봉우리의 형상을 그리기 보다는 宋玉의 賦에서 楚王이 꿈에 巫山 神女를 만나 정을 나누는 ‘朝雲暮雨’의 고사를 활용한 것이 이채롭다.²¹⁾ 특히 제5,6구에서 神女의 등장과 퇴장 모습을 은유하면서 ‘暮雨’와 ‘朝雲’을 ‘流烟’과 ‘行雲’으로 치환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神女를 여타 神女와는 다른 형상으로 묘사한 재치가 돋보인다. 협곡의 모습을 그림에 있어 神話傳說과 古代 諺語를 함께 융합하여 신비감을 돌출시키면서 ‘幽峭’하고 ‘奇艷’한 풍격을 잘 창출하였고 기벽한 면모를 잘 드러냈다. 말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神女, 三峽, 詩人, 行人 등의 각종 ‘哀怨’을 결집한 듯 처연한 경지를 투영하고 있어²²⁾ 孟郊 시의 ‘苦寒’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이라 하겠다.

孟郊의 작품 중 奇險하고 僻僻한 정경을 연작으로 그려낸 다른 시 몇 편도 孟郊

- 19) 이 시는 古詩의 換韻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제2구의 ‘峰’이 ‘二冬韻’을, 제3구의 ‘雨’와 제4구의 ‘女’가 서로 통용되는 ‘七雨韻’과 ‘六語韻’을, 제5구의 ‘姿’와 ‘稀’가 서로 통용되는 ‘四支韻’과 ‘五微韻’을, 제8구의 ‘衣’가 다시 ‘五微韻’을 각각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20) 孟郊의 작품 중에는 이 시와 동시기에 지은 〈巫山行〉一首가 더 있다. 시의 내용을 소개해 보면 “수만리 바라보노라니, 삼협의 원숭이 소리 들리지 않아. 그저 쓸쓸히 비만 날리고, 그 중에 외로운 혼만 또렷이 서 있네.(見盡數万里, 不聞三聲猿. 但飛蕭蕭雨, 中有亭亭魂.)”이다.
- 21) 宋玉〈高唐賦〉: “楚襄王游雲夢之澤, 夢神女曰: ‘妾在巫山之陽, 高丘之阻. 早爲行雲, 暮爲行雨. 朝朝暮暮, 陽臺之下.’”
- 22) 王洪, 《唐詩精華分卷》, (北京: 朝華出版社, 1992. 6. 제722쪽): “隨着‘行雲飛去’一句, 使詩頓生莫名的哀怨. 這怨似是神女之怨, 似是三峽之怨, 又似是詩人, 行人之怨, 真是哀婉有致, 韻味無窮.”

시의 특징을 드러낸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河南 登封 嵩山에 있는 명승지 石淙을 둘러보고 쓴 〈石淙〉十首, 終南山 협곡을 보고 느낀 비애감을 표현한 〈峽哀〉十首, 차가운 시내의 모습 속에 사회현실을 투영한 〈寒溪〉九首 등이 그러한 작품이다. 孟郊는 이러한 시가에서 기묘한 인상을 주는 감각적인 시어를 다수 활용했는데 그 표현들은 대체로 ‘어둡고(暗)’, ‘차가우며(冷)’, ‘메마르거나(枯)’, ‘생경한(硬)’ 의상을 형성하면서 작자의 울분과 고뇌를 전달하고 있다. 일례로 嵩山 石淙을 둘러보고 쓴 〈石淙〉十首 중 다음의 제1수는 독자로 하여금 기험한 자연정경에 대한 느낌이 충분히 인지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이 보인다.

〈石淙〉其一(석종) 제1수

巖石不自勝 암석은 홀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水木幽奇多 물과 나무가 있어 그윽하고 기이함을 더하는 것
 朔方入空曲 북방 산수 중의 한 텅 빈 계곡으로 들어가니
 涇流無大波 그 사이로 물 흐르나 큰 물결은 없다
 迢遞逗難盡 그 아득한 모습 보다보니 다함이 없으랴
 參差勢相羅 들쭉날쭉 산들의 모습은 서로 엉키어 있다
 雪霜有時洗 눈과 서리 때때로 이 정경을 씻어 내리니
 塵土無由和 먼지와 흙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이 없다
 泔泔誠未厭 맛 좋은 샘물은 실로 싫증이 안 나
 晚步將如何 저녁에 느릿하게 걷는 이 기분 어떠한가

石淙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한 부분인데 제2구에서 ‘幽奇’로 청유하고 기험한 경지를 표현했고 제5구에서 ‘難盡’으로 적막하고 궁벽한 모습을 표현했다. 특히 수연에서 암석에 물과 나무가 더해지면 “그윽하고 기이하다”는 언급을 한 것은 기험한 자연을 애호하는 맹교 특유의 미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윽하고 기이한 형상을 즐기던 전반부의 묘사에 이어 후반 4구에서는 산 속에서 직접 자연을 바라보던 시인이 느낀 淸幽한 정신적 경계를 서사했다. 이러한 기벽한 산수를 실증내지 않는 맹교 자신의 독특한 의식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있는 것이다.²³⁾

23) 정경에 대한 독특한 이미지의 형상화는 石淙을 노래한 다른 시가에서도 발견된다. 〈石淙十首〉其四(석종) 제4수에서 “북방의 물 흐름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워, 가을 돌은 벽옥처럼 선명하다. 어룡의 기세는 특별하지 않고, 소의 동굴은 납작하여 더욱 아름답다. 눈 쌓인

계곡에서 느끼는 독특한 감정을 묘사한 작품 〈峽哀〉十首 중 제7수는 계곡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일어났던 사람의 죽음을 떠올린 것이다. 주제와 내용이 매우 독특하면서 '險怪'함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峽哀〉其七 (계곡에서의 비애) 제7수

峽棲赴日月 골짜기 끝은 해와 달을 향해 솟아있고
 日月多摧輝 해와 달은 많은 빛을 내려주고 있다
 物皆斜仄生 사물은 모두 비스듬히 존재하여
 鳥翼斜仄飛 새도 날개를 비스듬히 하여 난다
 潛石齒相鎖 물속의 돌은 마치 이를 다문 듯 맞물려 있고
 沉魂招莫歸 그 속에 가라앉은 영혼은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다
 恍惚清泉甲 맑은 시내 표면을 보니 황홀하고
 班爛碧石衣 마치 푸른 돌에 옷을 입힌 듯 찬란히 빛난다
 餓咽潺溪號 물은 아직도 허기가 지는지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涎似泓泓肥 그 포말은 두터운 깊이를 이루고 있다
 峽春不可游 협곡의 봄은 아직 노닐 만 하지 않으니
 腥草生微微 이제 막 솟아나는 연한 풀은 아직도 저리 미미하구나

하늘의 해와 달을 향해 날카롭게 솟아 있는 계곡 바위의 모습과 협곡 양쪽에 비스듬히 자라는 나무들의 묘사로 시작하였는데 그 표현이 역시 기험하다. 물 밑의 초석을 보고 '이를 다문 듯 잠겨있다(齒相鎖)'라고 표현한 것이나 이 모습을 보고 이곳에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을 연상한 것, 물이 아직도 사람을 집어삼키기 위해 소리를 내며 흐른다고 표현한 것 등은 실로 기발한 착상이 된다. 매우 험괴한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음을 시 전체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예거된 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孟郊의 눈에 비친 산수는 아름다운 산수라기 보다는 奇險하고 苦澁한 느낌과 표현을 이루게 하는 비애의 투영체로 작용한 느낌이다. 孟郊는 소박한 시어를 주로 활용하면서도 진부한 표현이나 전고를 배격한

돌다리 계곡 입구로 향하고, 모였던 별들도 아득한 하늘에 흩어져 있다.(朔水刀劍利, 秋石瓊瑤鮮. 魚龍氣不腥, 潭洞伏更妍. 磴雪入呀谷, 掬星灑遙天.)"라고 표현하여 칼날 같은 물 흐름과 벽옥처럼 선명한 바위의 모습 등으로 산수풍경의 기험함을 전달하였고 하늘의 별들을 흩뿌린 것으로 묘사하여 이채로운 느낌을 더한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채 기이한 의상을 창출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작품 〈贈別殷山人說易後歸幽墅〉(은산인 설이가 한적한 별장으로 돌아가는 것에 부쳐) 중의 “가을 달은 흰 밤을 토해내고, 서늘한 바람은 맑은 기운을 발한다.(秋月吐白夜, 涼風韻清源.)”, 〈濟源寒食〉 其七(한식의 근원을 찾아서) 중의 “꿀벌은 주인을 위해 각기 이를 가는데, 마을 속 온갖 꽃나무에서 역할을 다 한다네.(蜜蜂爲主各磨牙, 咬盡村中萬木花.)”, 〈送蕭煉師入四明山〉(소련사가 사명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송별하며) 중의 “천 길 곧게 쪼개진 봉우리, 백 척을 거꾸로 흘러가는 샘물.(千尋直裂峰, 百尺倒瀉泉.)” 등의 구절에서 ‘북풍이 부르짖는다(北風叫)’, ‘차가운 빛(冷光)’, ‘흰 밤을 토해낸다(吐白夜)’, ‘이를 간다(磨牙)’, ‘쪼개진 봉우리(裂峰)’, ‘거꾸로 흘러가다(倒瀉)’라고 언급한 표현들은 마치 현대 인상파 시가에서 발견되는 듯한 기험하고 독특한 표현의 예들이다. 사물 본연의 형상을 뛰어넘어 강렬하고 파괴적인 묘사를 이룬 느낌을 주는 거친 표현들이었다.²⁴⁾ 孟郊는 이러한 구절을 통해 시인의 개성과 함께 내면의 강렬한 불평과 비분을 자연묘사 속에 표출하였고 韓孟시파의 문학적 특색의 하나인 “不平則鳴”의 경지를 발휘하고자 한 것이다. 자연물에 대해 기이한 묘사와苦涩한 표현을 가함으로써 신기하고도 환상적인 의경을 창출하였고 韓愈와 李賀의 奇特한 시풍을 잇는 중간 연결자의 입장을 담당하며 특색 있는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孟郊 시가 지닌 이채롭고도 독특한 가치라 할 것이다.

3) 현실의 불만과 고독감의 자연묘사 속 이입

孟郊는 사회현실과 백성의 고통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갖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관직이 순탄하지 못했던 관계로 현실참여에는 한계가 있었다.²⁵⁾ 현실참여

24) 위 구절과 관련하여 孟郊가 자연형상을 기괴하게 표현한 시구 몇 구절 더 예거해본다. “오래부터 놀란 모습에 모발이 떨리고, 괴이함에 놀라 보고 듣는 것도 괴이하다.(古駭毛髮慄, 險驚視聽怪.)”(《石淙》 其八), “천 개의 돌들 괴이하게 빛나니, 그 이채로운 형상 어찌 짐작하랴.(閃怪千石形, 異狀安可量.)”(《答盧仝》), “산의 괴물 밤중에 문을 흔들고, 물의 요정은 때때로 못을 희롱하네.(山怪夜動門, 水妖時弄池.)”(《寄義興小女子》), “실제로 있는 괴이한 모습은 칭찬해도 부족하고, 선명하게 다른 것 많은 모습에 기뻐하네.(實怪賞不足, 異鮮悅多叢.)”(《奉同朝賢送新羅使》) (肖占鵬, 《韓孟詩派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99. 6. 제 110쪽 참조)

가 여의치 않았을 때 자연을 찾아 소요했던 여타 문인들과는 달리孟郊는 여러 수의 작품을 통해 냉엄한 자연현상을 예거하며 사회현실을 풍자하고 개인의 처절한 고독감을 발산한 면모를 보인다.孟郊에게 자연은 위안과 평온의 의미를 제공하는 인식처이기도 했지만 현실의 불만을 토로하는 분노의 투영대상 같은 이미지도 지니고 있었다. 이렇듯 현실에 대한 분노의식과 개인의 고독감이 자연물과 연계된 작품을 써낸 것은孟郊가 실제 현실이 아닌 가상적인 현실 즉 자연 속에서 현실참여 의식을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연을 들어 현실의 불만과 고독감을 표출한 이러한 작품들은 '寒冷', '苦澁', '奇險', '淒然' 등 각종 풍격을 고루 반영하고 있다. 이는 현실불만과 개인의 우수가 복합적으로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며 자연이 주는 평온한 느낌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을 찾고 창작을 가하는 여타 자연시 창작의 목적과는 다른 이채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작품들은孟郊시가 지닌 중요한 특색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몇 수의 작품을 통해孟郊가 자연을 분노와 불만의 투영체로 활용한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孟郊의 시가 중 五言古詩 형태로 시냇물을 묘사한〈寒溪〉8수 같은 작품은 차갑게 흐르는 시내의 형상과 현실을 대비시킨 양상을 띠고 있다.〈寒溪〉전체 8수 중 제7수를 살펴본다.

〈寒溪〉其七 (차가운 시냇물) 제7수

25) 孟郊는 이로 인해 생긴 고뇌와 개인적인 우수를 〈征婦怨〉, 〈感懷〉, 〈殺氣不在邊〉, 〈傷春〉, 〈游子吟〉, 〈結愛〉, 〈杏殤〉 등 여러 수의 영회시를 통해 표출한 바 있다. 〈長安羈旅行〉: “한 달에 겨우 아홉 번 음식을 먹었고, 매 번 먹는다 해도 빈한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만물은 모두 때가 있다고 하는데, 나만이 유독 봄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三旬九過飲, 每食唯田貧. 萬物皆及時, 獨余不覺春.)”, 〈秋夕貧居述懷〉: “얕은 우물엔 마실 물도 없고, 척박한 땅은 늘 밭 갈지 못해 피폐했네. 오늘날 사립은 옛날과 달라, 빈한하다는 말도 모두 가벼이 여기는구나(淺井不供飲, 瘦田常廢耕. 今交非古交, 貧語聞皆輕.)”, 〈借車〉: “수레를 빌려 가재도구를 싣고, 가재도구가 수레에 다 차지 못하였네. 빌려주는 이여 손가락질 마소, 빈궁함은 어찌할 수가 없다오. (借車載家具, 家具少于車. 借者莫彈指, 貧窮何足嗟.)” 등은 모두 孟郊의 빈한한 생활을 나타낸 구절의 예이다.

26) 高菊榮은 〈孟郊賈島創作辨析〉(阜陽: 阜陽師範學院學報, 2003. 제1기.)에서 孟郊의 이런 시풍은 中晚唐期 지식인의 생활환경, ‘不平則鳴’으로 대변되는 당시의 곤궁한 시인들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 孟郊 자신의 개인적 성격과 생활고, 당시 기험한 기풍을 애호했던 ‘元和尙怪’의 분위기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어 참고가 된다.

尖雪入魚心 차갑게 눈 녹은 물 물고기의 가슴에 들어오자
 魚心明愴愴 물고기의 마음은 초췌해진다
 恍如罔兩說 그 황당한 모습은 마치 그물에 걸렸으니
 似訴割切由 그 인연을 잘라내고자 호소하는 것 같다
 誰使異方氣 그 누가 이 이상한 기운을 갖게 하였나
 入此中土流 이 물 속에는 흙탕물이 흐르고 있네
 翦盡一月春 봄의 한 달을 잘라내어
 閉爲百穀幽 온통 그윽한 계곡에 가두고 싶어라
 仰懷新霽光 새로이 비 개인 모습 바라노라니
 下照疑憂愁 하늘 아래 근심스러운 마음을 비추고 있네

차가운 시냇물과 그 속에 사는 물고기, 시냇물 속을 흐르는 흙탕물, 새로이 비치는 햇살 아래 느끼는 근심 등 시냇물을 둘러싼 각종 자연환경을 열거하였다. 이 시의 배경이 된 시냇물이 주는 느낌은 차갑고도 냉혹한 현실적 이미지요, 그 속에 갇힌 듯 사는 물고기는 현실에 매인 시인과 백성들의 한계상황을 대변하는 존재이다. 이 시에서 孟郊는 힘든 자연환경과 물고기의 모습을 서술하면서 잔혹한 자연 세계처럼 인간에게 가해진 구속과 핍박을 이야기한다. 마치 따듯한 햇살을 그리워하는 죄수처럼 봄의 한 달을 잘라서 자신들의 영역에 간직하고자 하는 상상력을 발휘한 대목이 이채롭게 느껴지는 것이다. 말연에서 종결어로 활용한 '憂愁'라는 단어는 종래 이 고난의 현실을 못 벗어나는 시인의 근심어린 마음을 대변하는 시어라 하겠다.

그가 이렇게 차가운 자연형상을 묘사해나가게 된 의식의 기저에는 세속에서 득의하지 못한 회한의 그림자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과 연관하여 자연을 들어 세속을 향해 분감을 표한 다음 작품을 살펴본다.

〈寓言〉(우언)

誰言碧山曲 그 누가 푸른 산에 굴곡이 있어도
 不廢青松直 푸른 소나무의 울곧음을 꺾지 못한다고 말 하는가
 誰言濁水泥 그 누가 탁수에 진흙이 있어도
 不汚明月色 밝은 달빛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말 하는가
 我有松月心 나는 소나무와 달의 마음 있으나

俗騁風霜力 세속에서는 바람과 서리가 위세를 부리네
 貞明既如此 정결하고 밝음이 이와 같으나
 摧折安可得 가지가 꺾이면 어찌 그러한 뜻 얻으리오

시인은 이미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겪은 후이기에 자연은 더 이상 그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시인은 푸른 산에 굴곡이 있으나 소나무는 울곧음을 유지할 수 있고, 탁수에 진흙이 있어도 밝은 달빛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의식을 본래 갖고 있었다.²⁷⁾ 이처럼 그의 시에 등장하는 자연물은 본래 고요하고 정갈한 형상을 지닌 자연이지만 그 내면에 담긴 의경은 처연하고 처량하다. 세속에서는 바람과 서리가 위세를 부리는 상황이니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제적인 고난이 시인에게 엄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독자는 소화하기 어려운苦涩한 풍격을 느끼게 되며 냉엄한 현실을 재차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孟郊가 자신의 심경을 잘 술회한 작품으로 만년에 지은 〈秋懷〉 16수가 있다. 그 중 제1수인 다음 작품을 보면 자신의 신세를 ‘벌레(蟲)의 울음소리’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어 좌절 속에 갇힌 자신의 자아에 대해 한계의식과 축소된 시야를 지니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秋懷〉 其一 (추회) 제1수
 孤骨夜難臥 고독한 이 몸 밤에 눕기도 힘들어
 吟蟲相唧唧 짝짝 벌레 우는 소리만 마주하고 있네
 老泣無涕洟 늙으니 울어도 눈물 콧물 흐르지 않고
 秋露爲滴瀝 가을 이슬이 내 대신 맺혀 있는 듯
 去壯暫如翦 건강했던 이전 시절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來衰紛似織 남은 쇠미한 날은 마치 베 조직처럼 얽혀 있구나
 觸緒無新心 정서를 느껴보고자 하나 새로운 마음 안 들고
 叢悲有餘憶 그간에 쌓인 비애감만 추억으로 넘쳐나네
 詎忍逐南帆 내 어찌 남쪽으로 돛단배 타고 가
 江山踐往昔 이전의 고향땅을 밟을 수 있을 것인가

27) 范晞文, 《對床夜語》 권1: “誰言碧山曲, 不廢青松直. 誰言濁水泥, 不污明月色’ 是欲和光同塵也. 下句亦本李太白‘濁灑濁水泥, 水濁不見月.’, 第反其意耳.”

수연에서 벌레 우는 소리와 마주하고 있는 형상을 '吟蟲相唧唧'으로 표현하면서 자연의 미물을 들어 정교하고도 세미한 묘사를 가한 것이 이채롭다. 이어 제2연에서 “늡으니 울어도 눈물 콧물 흐르지 않고, 가을 이슬이 내 대신 맺혀 있는 듯”하다는 표현에 대해 혹자는 “각고의 표현을 했지만 性情이 두텁다”²⁸⁾는 평을 가하기도 했고, 혹자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진다”²⁹⁾라고 평하기도 했지만 늡어서 느끼게 된 실제적인 정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심금을 울리는 진솔한 면모가 담겨있음을 느끼게 된다.³⁰⁾ 자연 중에서 미물을 들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점이 세밀하고 소자아 적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참되고 진실한 전율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시에 나타난 모습처럼 孟郊의 눈에 우선적으로 들어온 자연은 웅건한 산하의 모습보다는 일정한 草木이나 鳥蟲 같은 미세한 생명체였고 명랑하고 화사한 의경보다는 침울하고 소산한 기운을 드러내는 정경인 경우가 많았다.³¹⁾ 이처럼 孟郊는 여러 작품을 통해 소자연의 형체나 비감 어린 자연물들을 주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韓孟詩派 특유의 고삼한 경지 추구에다 자신의 처연한 신세의 식과 심경을 투영한 결과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특정 자연물에 자신의 심정을 투영한 시 두 편을 예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衰松〉 (노쇠한 소나무)

近世交道衰 근래에 사귀의 도가 쇠한 것처럼
青松落顏色 푸른 소나무의 모습도 기울었다
人心忌孤直 사람의 마음은 외롭게 곧은 것을 싫어하는데
木性隨改易 나무의 본성도 이런 세태 따라 바뀌었는가

28) 余成教, 《石園詩話》 권2: “〈秋懷〉云: ‘孤骨夜難臥, 吟蟲相唧唧. 老泣無涕洟, 秋露爲滴瀝.’ 詩雖刻苦, 而性情敦厚.”

29) 潘德輿, 《養一齋詩話》 권1: “惟〈秋懷〉諸作, 如‘老泣無涕洟, 秋露爲滴瀝.’, 真有寒意, 然不可以概全集也..”

30) 方世舉, 《蘭叢詩話》: “此兩人(秋懷)可知也. 東坡全目之爲苦蟲風味, 誠苦矣, 得毋有橄欖回味耶? 余少不知, 老爲咀嚼之.” 참조.

31) 〈秋懷〉 16수의 다른 작품에서도 벌레나 새 같은 미물을 통해 자신의 신세를 치환한 대목이 발견된다. “가을 풀 백발처럼 여의었고, 향기로운 꽃은 누런빛으로 시들어 있네.(秋草瘦如發, 貞芳綴疏金.)”(其七), “차가운 이슬에 시리고 병들어, 메마른 바람만 탄식 속에 붙어대네. 가을 깊어지니 달빛은 맑고도 괴로워, 벌레 같은 이 몸 늡어가며 소리만 거칠어지누나.(冷露多瘁索, 枯風饒吹噓. 秋深月清苦, 虫老聲粗疏.)”(其九)

既摧栖日乾 이미 꺾어진 나뭇가지에 햇살이 비친다 해도
 未展擎天力 하늘 향해 가지 들어 올릴 힘은 없어졌다네
 終是君子才 비록 군자의 재능은 다 하였다 하나
 還思君子識 군자를 향한 그리움만은 남나니

〈獨愁〉 (홀로 근심을 느끼며)
 前日遠別離 그저께 멀리 이별하였더니
 昨日生白髮 어제는 백발이 생겨났다
 欲知萬里情 만 리 밖의 사정을 알려고 하니
 曉臥半床月 새벽에 누워있는 반달이 침상에 비치네
 常恐百蟲鳴 온갖 벌레의 울음소리에 늘 마음이 쓰이니
 使我芳草歎 내가 아끼는 방초까지도 시들게 하는구나

한 편은 소나무, 또 한 편은 벌레라는 특정 자연물을 향해 마음을 쏟고 있음을 나타낸 작품들이다. 〈衰松〉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외롭게 곤은 것을 싫어하는(忌孤直)” 경향과 인재를 못 알아보는 世道에 대해 한탄을 가하고 있고 나날이 쇠해 가고 있는 “사림의 도(交道)”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獨愁〉에서도 이별 뒤에 느끼는 근심을 가장 크게 유발시키고 있는 것은 ‘온갖 벌레(百蟲)’의 울음소리인데 ‘방초를 시들게 한다’는 표현을 통해 이 벌레를 보면서 ‘두려움(恐)’까지 느끼게 되는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소자연물에서 기인한 감상이 시인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그 감정의 농도가 참으로 깊다.³²⁾ 이 같이 자연물을 향한 강한 집착과 소자아적인 면모는 세상의 고난을 겪은 경력과 세상에 대한 일정한 피해의식이 합해진 처연한 경지에서 기인한 결과임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孟郊는 여러 차례에 걸친 과거 낙방과 가족의 죽음, 병고와 빈한한 생활 등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된 심정을 지니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미성년’의 입장에 선 문인이었다. 그는 일생동안 古文과 奇文을 좋아했고 漢魏六朝의 오언고시 전통을 학습하였기에 大歷, 貞元의 시인들과 비교할 때 漢魏風骨에 더욱

32) 曾季狸, 《艇齋詩話》: “情深高妙, 誠易難窺.”, 譚元春, 《唐詩選評》: “六句詩當看其圓捷處, 又芳草之上, 着一我字, 無理而又至情.” 평어 참조.

가까운 면을 지니고 있었다. 사회적 책임을 인식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개인적 환경과 서정은 적극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렇기에 孟郊가 자연을 노래할 때 활용한 기험한 시풍이나 차가운 서정은 현실에서의 활로를 찾지 못하는 절박한 심정의 비틀어진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그의 자연묘사 작품으로 하여금 陶淵明이나 謝靈運 등의 자연시에서 얻는 평온함이나 소요의식과는 다른 무언가 “기쁘지 않은 느낌”³³⁾을 얻게 한다. 이러한 점이 바로 孟郊 시가의 자연묘사 부분이 지닌 이채로운 예술적 풍모라 하겠다.

3. 결론

孟郊는 일생동안 평안하고 한적한 생활을 갈망했으나 실제로는 곤궁함을 면치 못하고 가난과 飢寒을 친구삼아 살아갔던 인물이었다. 그는 유가적 문학관을 지녔던 문인이었으며 가난과 지식 없는 외로움, 과거낙방 등으로 인해 곤궁한 일생을 보낸 탓에 고뇌와 우수를 담은 시가를 많이 썼다. 오랜 단련을 거치는 苦吟을 추구 하였으나 시어가 화려하기보다는 古拙한 면을 지녔고 개인적 우수를 지닌 탓에 韓愈의 시가 외부로 분방했던 것에 비해 孟郊의 시는 내면으로 수렴되는 느낌을 제공한다. 그가 자연을 노래한 작품은 大歷, 貞元 중하층 문인의 빈한한 생활과 근심을 반영한 정서나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출한 작품이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살펴보았다.

본고를 통해 여타 자연시인들이 일반적으로 자연시를 통해 한적한 경지를 노래하고 자연 속에서의 소요의식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孟郊가 자연을 바라보고 묘사했음을 살필 수 있었다. 그의 시에서 자연의 형상은 마음에 평온을 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용납하기 어려운 처량함이나 괴로움 혹은 기괴한 모습의 지닌 존재로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자연정경의 묘사를 통해 독자는 청량하기보다는 奇險하고 苦澀한 느낌을 얻게 되고 자연을 향유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33) 孟郊 시가가 주는 이미지에 대해 嚴羽는 《滄浪詩話》〈詩辯〉에서 “孟郊之詩刻苦，讀之使人不歡.”라고 하여 그의 ‘刻苦’가 독자로 하여금 기쁘지 않은 감정을 얻게 한다고 평한 바 있다.

고뇌하고 슬픔에 차 있는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는 孟郊의 성품이나 개인의 이력에서 기인하는 독특함이기도 하지만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관리의 부패에 대한 항거의식, 백성의 고통에 대한 동정 등의 심정이 투영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살펴본 孟郊의 자연시가 지닌 독특한 의경은 韓孟시파의 특색이 담긴 자연투사기교, 孟郊 개인의 개성적 기교의 발휘, 中唐의 사회적 배경이 투영된 자연묘사 등을 살피고 연관성을 찾는 데 있어 단초를 얻을 수 있는 특성들이 된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全唐詩》，北京：中華書局，1979。
- 辛文房，《唐才子傳》，哈爾濱，黑龍江人民出版社，1988。
- 傅璇琮，《唐才子傳校箋》，北京：中華書局，2000。
- 許 總，《唐詩史》(上·下)，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
- 章尚正，《中國山水文學研究》，北京：學林出版社，1997。
- 葛曉音，《山水田園詩派研究》，瀋陽：遼寧大學出版社，1993。
- 陳伯海 主編，《唐詩彙評》(上·中·下)，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5。
- 喻朝剛，《全唐詩廣選新注集評》，瀋陽：遼寧人民出版社，1994。
- 王 洪，《唐詩精華分卷》，北京：朝華出版社，1992。
- 譚 蔚，《中國古代山水田園詩賞析》，貴州：貴州人民出版社，1986。
- 樊運寬，《古代山水田園詩精選點評》，南寧：廣西師範大學出版社，1986。
- 肖占鵬，《韓孟詩派研究》，天津：南開大學出版社，1999。
- 于 水，〈淺論孟郊詩的思想內容〉，《考試週刊》，2011。
- 趙平平，〈淺議孟郊與賈島詩歌比較〉，《中國古代文學研究》，2009。
- 沈建華，〈“郊寒島瘦”辯析〉，《理論探索》，第4期，2007。
- 代 亮，〈孟郊、梅堯臣窮苦之吟異同論〉，桂林：《廣西社會科學》，2008。
- 万 露，〈苦吟與詩歌的陌生化效應—論孟郊、賈島詩〉，《樂山師範學院學報》，2010。
- 高菊榮，〈孟郊賈島創作辨析〉，阜陽：《阜陽師範學院學報》，2003。第1期。
- 高賢美，〈韓孟시파의 창작론과 심미성향〉，《중국학연구》제26집，2003。12。
- 이우정，〈賈島시대에 관한 소고〉，《중국어문논총간》，제14집，2005。

〈中文提要〉

孟郊(751-814)是中唐一位很有个性的诗人,有‘诗囚’之称,与贾岛齐名,人称‘郊寒岛瘦’,现存诗歌500多首,以苦寒奇险风格在唐代自然诗的发展过程中做出了独特贡献。他的自然诗,不同于陶渊明、谢灵等人的创作,有前人山水诗中的闲淡之情,有着自己独特的艺术特色和风格。本篇论文着眼于上记的内容,在主要三个方向下分析了孟郊自然诗的特点和意义。

第一,孟郊在写自然诗时,爱好使用一些令人胆寒的意象,据笔者调查,孟郊诗歌500余首中活用了‘寒’字60次,‘冷’字13次,‘冰’字35次,‘冻’字19次,可知孟郊指向的诗的意象相当部分带着冷静萧瑟的倾向。这种意象能给人一种阴森恐怖的感觉,情景相生而形成凄寒的艺术风格。

第二,孟郊的诗歌还善于将自然界中幽奇险僻的景物运用于其中,使之让人感到惊骇。孟郊有时意识的将自己投入到清风朗月之中尽情享受,描写一些令人感到凄凉悲惨的险怪事物,如虎哮、妇啼等,让读者感到苦涩之味和心灵上的震颤之感。

第三,孟郊自然诗忠实表现着现实的不满和个人的悲感。孟郊的一生经历了科举考试不弟的打击,他一辈子都诅咒贫穷饥寒,可偏偏一辈子与贫穷饥寒作伴,这一切就好像是他一生都要体验不幸,痛苦、贫穷而孤独、凄凉的生活。孟郊的一生饱受了命运和现实社会的折磨,因此才造就了他自然诗别具一格的悲剧风格。可以说孟郊自然诗中的三种意境—凄寒、奇险、苦涩三者是相辅相成的,正因为有这三种意境贯穿其中,才使得孟郊的自然诗别具一格、独树一帜。

關鍵詞: 孟郊, 自然詩, 山水詩, 山水田園詩, 中唐, 奇險, 苦澁, 凄寒

이 논문은 2013년 5월 15일에 접수되어 2013년 6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3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